

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23日(金) 午前11時

第61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洪德熹)

(11時00分 開式)

○議事係長 洪德熹 지금부터 제61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는 한마디로 개발이익에만 급급한 시공회사의 부실시공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모두 무사안일한 자세가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전안전점검과 감독 그리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 및 보완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조금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기를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여 이번 축대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함께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고 주어진 여건이 유효하게 활용될 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하는 사회,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힘의 모임은 바로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자랑이며 의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맡은바 직분의 위치를 다시한번 스스로 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이 국

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가 변했다는, 세상이 변했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시대착오는 가장 큰 병입니다. 우리 국민, 우리 성북구민은 이제 더이상 지난 시대의 낡고 구태의연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국가능력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위기를 미래로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듭시다. 우리 국민 우리 50만 성북구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버리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각오로 희망의 21세기 성북구로 만듭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 도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다시한번 오늘 이자리를 함께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時10分 閉式)